

프리셉터 제도의 도입과 활용에 관한 인식 및 수용도에 대한 조사연구

방준석¹ · 장정훈^{2#} · 김수진³ · 손의동¹ · 심상수¹ · 정지훈⁴ · 최병철^{5*}

¹중앙대학교 약학대학, ²국립독성과학원, ³중앙대학교 의약식품대학원, ⁴중앙대학교 의과대학, ⁵약사교육연구소

A Survey for the Recognition and Adoption Rates Concerning the Application of Preceptorship into the Pharmacy Education Settings

Joon Seok Bang¹, Junghoon Jang^{2#}, Su Jin Kim³, Uy Dong Sohn¹,
Sang Soo Sim¹, Ji Hoon Cheong⁴, and Byung-Chul Choi^{5*}

¹College of Pharmacy, Chung Ang University, Seoul, Korea

²National Institute of Toxicology Research, KFDA, Seoul, Korea

³Graduate School of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Chung Ang University, Seoul, Korea

⁴College of Medicine, Chung Ang University, Seoul, Korea

⁵Korea Pharmacist Education & Research Institute, Seoul, Korea

#This article represents the point of views of the author.

It doesn't necessarily represent the official position of NITR or KFDA.

Objective: The aim for this article was to evaluate and to clarify the current opinions of the registered pharmacists concerning their recognition and adoption rates about introducing the preceptorship into the clinical pharmacy internship and clerkship. **Methods:** A 25-question-questionnaire was developed and pilot tested. For 40 days of survey by both on-line and on site, 90 over 240 (37.5%) registered pharmacists responded and the data were analyzed with comparison to the groups working in community and hospital pharmacies. **Results:** The overall answers were affirmative and the respondents were very interested in the application of the clinical preceptorship to the pharmacy educational and to their clinical settings. Moreover, the qualification level and the implementation methods were proposed in detail. **Conclusion:** Although ninety pharmacists showed their views differently, most of the respondents regarded the preceptorship as an adequate training system for the pharmacy students as well as junior pharmacists at the time of initiation of the new 6-year pharmacy education system in Korea.

□ Key words - 6-year Pharmacy Education System, Clinical Pharmacy, Preceptor, 약대6년제, 임상약학, 실무지도약사

우리나라 약학대학 교육체계가 2009년도부터 6년제로 전환되면서 약학의 지속적 발전은 물론, 약사의 수준 높은 직능수행을 동시에 추구하는 방향으로 이론 및 실습 교육과정을 개편하려는 다각적인 노력이 진행 중이다. 이를 위해 약학계와 약업계 직능단체들이 약대6년제를 선진적으로 도입했던 미국이나 일본 등의 운영사례를 검토함으로써 이론 교과과정의 재조정과 현장 실습과정의 심화를 모색 중이므로 머지않아 세부적인 표준지침이나 시행방안이 도출될 것이다.¹⁻³⁾ 하지만, 과거 우리나라 약학교육이 약효물질의 연구, 개발,

생산, 유통 및 관리 전문가로서의 약사인력 양성에 치중하였다면, 이제는 점차 다양해지고 고도로 전문화되는 약료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약사를 양성하는 것도 강조되어야 할 것이며, 이렇게 변화할 임상약학 Paradigm을 약대6년제 시행과 더불어 구현하자면 교과과정의 개편은 물론 교육 방식에서도 이제와는 상이한 접근이 요구된다.^{4,7)}

미국식 임상약학 이론과 실무 개념이 본격적으로 소개된 지난 20여 년 간 의료기관 부속 약제부서(이하 병원약국)를 중심으로 병원임상약학은 비교적 체계를 갖춰왔고 계속 발전하고 있다.⁸⁾ 하지만, 약학대학 졸업자의 대다수가 진출하는 지역사회약국(이하 지역약국)의 임상약학 교육의 표준화나 체계화 연구는 미진하여 현재까지 대다수의 초임 약사들이 임상실무를 위한 기술 습득과 역량 확보를 선임 약사의 경험을 전수받거나 비체계적인 체험학습적 환경에서 일상업무

Correspondence to : 최병철

약사교육연구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3-21 맨하탄21 904호

Tel: 02-3426-5664, Fax: 02-3426-2638

E-mail: choibych@unitel.co.kr

를 반복하는 방식에 의존하는 현실이다.⁹⁻¹¹⁾ 그간 약학계는 임상현장에서 요구되는 실무실기를 짧은 기간의 임상현장 견학실습 등으로 보완해왔다.¹⁰⁾ 한편, 해외는 물론 국내 의료계에서는 오래 전부터 임상 실무 교육 프로그램과 평가방법에 대해 많은 연구가 있었고, 직무수행에 열의를 가진 숙련된 '프리셉터(Preceptor)'를 선발하여 임상교육을 담당케 함으로써 학교교육에서 축적한 이론지식을 실무능력으로 변환시켜주는 교육방법론을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채택하여 계속 발전시키고 있다.¹²⁻¹⁵⁾

프리셉터의 사전적 의미는 본래 정신적 혹은 종교적 교훈자나 개인지도 교사를 뜻했으나,¹⁶⁾ 미국에서 유래한 특수한 의미로서, 병원에 재직하면서 의과대학 학생의 임상실무 교육을 책임지는 '지도의사' 혹은 '상급의사'를 일컫는 의미로 확대되었다. 차츰 간호학이나 약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나 해당 면허를 갖 취득한 초보 수련자(Preceptee)의 임상 실무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신의 전문지능을 수행하면서 초보 수련자에게는 직업상 접하는 최초의 역할모델로서, 직무 윤리를 포함한 정신적 훈육까지 포괄적으로 수행하는 사람, 즉 Mentor란 뜻으로도 쓰이고 있다. 따라서, 국내 약학 교육현장 및 약업계에서는 '프리셉터'를 장차 '실무지도약사' 혹은 '지도약사'로 풀이하여 사용함이 적절하다고 여겨진다.¹⁷⁾

따라서, 본 조사연구는 약대6년제 시행과 더불어 약학대학생 혹은 초임 약사면허자를 위한 현장교육의 효과적인 방안으로 주목 받고 있는 '프리셉터 제도'의 성공적인 준비와 시행을 위하여 장차 임상실무교육을 실제적으로 담당하게 될, 지역약국 및 병원약국에 근무하는 일부 약사들을 대상으로 프리셉터 제도에 대한 현 시점에서의 인식과 수용 현황을 확인함으로써 장차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리셉터 양성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기반연구를 위해 수행하였다.

연구방법

설문지 설계

이번 조사연구 수행에는 포함시키지 않은 임상실무경력 5년의 지역약국약사(이하 지역약사) 3명에게 본 조사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설명한 뒤, 설문지 초안의 객관성과 타당성 및 편향성 여부를 검토케 한 후, 총 25개 문항을 최종 확정하였다. 설문지의 구성은, 6개 문항이 피설문자의 인적 사항과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고, 9개 문항은 피설문자의 직무수행능력 현황과 형성배경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며, 나머지 10개 문항은 프리셉터에 대한 인지도와 수용도 및 기대수준을 파악하도록 설계하였다. 세 개 문항은 복수응답이고, 2개 문항은 자유중복응답형 질문이며, 나머지 2개 문항은 실행 질의사항에 대한 추가 선택질문으로서 생략이 가능한 것이었다. 자료처리의 일관성과 용이성을 위해 각 질문의 선택 문항을 전부 5점 척도의 객관식으로 구성하였고, 평균적으로 5분 이내의 응답시간이 소요되었다.

설문 대상자 선정

연구에 사용된 표본집단은, 우리나라 약사면허를 취득하고 서울 및 경기 등 수도권 지역과 경상도, 전라도 지역에 소재한 지역약국에 근무하거나, 수도권 지역의 병원약국에 근무하면서 공히 최근 2년 내에 1주일 이상 지속되는 정기적인 집체 혹은 온라인 교육강좌를 자발적으로 수강한 이력이 있었다. 이들은 모두 자신의 이메일 연락처를 교육주관 기관에 남겼거나, 현재 지역약사나 병원약사를 대상으로 진행중인 교육과정 현장에서 설문에 응했던 총 240명의 약사들이었다. 이들은 임상약학에 대한 학습의욕과 성취동기가 대체로 높은 경향을 보였다.

조사기간

설문조사는 2008년 2월 26일부터 시작하였고, 병원약사의 경우는 동년 3월 21일까지 25일이, 지역약사 대상의 조사는 동년 4월 5일까지 총 40일이 소요되었다.

설문진행과 자료처리

선정된 두 종류의 약사집단에게 이메일 첨부문서 형태로 설문지를 발송하거나, 현장 방문 시에는 설문자료의 분석에는 참여하지 않은 2명의 약사에게 설문지의 배포와 회수를 전담시켰다. 수집된 결과는 또 다른 연구자가 도표로 정리하고, 분석을 담당한 통계학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응답자의 익명성을 보장함은 물론, 자료분석 시 의도적인 치우침의 가능성도 회피하였다. 이메일 설문지의 회신 유효기간은 20일로 한정하여 명시했고, 이 기간 중 회신된 것만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부분적으로 응답한 회신 자료는 각 질문에 응답한 도수를 측정하여 문항별 응답률을 100%로 환산한 응답빈도를 계산했으며, 특히 5점 척도 구간 값을 선택한 문항은 가중평균값을 표시하여 집단별 중심집중 경향을 쉽게 비교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응답자의 프리셉터의 인지도 및 수용도와 인구통계학적 특성간의 유의성 검정을 위하여 Fisher's Exact Test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설문 응답자의 특성

연령, 면허취득 후 경과기간 및 임상경험 기간 등을 포함한 6개 질문을 이용하여 도출한 응답자의 공통 특성은 다음과 같다. 지역약사는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약국에 근무하며, 면허 취득 후 6-10년이 경과하였고, 지역약국 임상경험은 2년 미만의 30-40대 여자였다. 병원약사는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병원약국에 근무 중이며, 면허취득 후 채 2년이 경과치 않은, 약국 임상경험은 2년 미만의 20대 여자였다.

총 240명의 현직 지역 및 병원 약사를 대상으로 직접방문과 이메일을 통한 설문에 회신한 경우는 지역약사 59명과

병원약사 31명으로서 합계 90명(응답률 37.5%) 이었다. 회수한 자료로부터 도출한 응답자의 특성으로는, 지역약사 83.0%, 병원약사 93.5%가 여자였다. 연령구간의 최빈값은 지역약사의 경우 30-40대가 64.4%였고, 병원약사는 20대가 67.7%였다. 지역약사 응답자는 20-40대에 걸쳐 고르게 분포했고, 비록 소수이지만 50-60대 응답자가 있었으나, 병원약사 중 50대 이상의 응답자는 없었다. 응답자가 근무하는 약국의 소재지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광역시 혹은 주변도시에 분포하였고, 약사면허 취득 후 경과기간의 최빈값은 지역약사가 6-10년(22.4%), 병원약사는 만 2년 미만인 45.2%로써 상기사술한 연령분포와도 일치하였다(Table 1).

피설문자의 임상현황 인식

설문에 응한 약사들의 임상직무 관련한 전반적인 문제인식과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먼저, 대다수의 약사들은 임상현장에서 필요한 임상실무관련 지식 및 기술을 약대 재학시 충분히 교육받지 못했다고 여겼으며(지역약사

83%, 병원약사 76.7%), 긍정적인 답변은 1.7%(지역약사)에 불과했고, 병원약사의 경우는 긍정적인 답을 한 경우가 한 명도 없었다. 이 결과는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써 재확인되었는데, '약국임상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어느 경로로 획득했는가'에 지역약사는 선배 약사로부터(39.7%), 사설강좌를 통해(31.0%), 본인 스스로(29.3%)라고 답하였고, 병원약사는 본인(50.0%)-선배(36.7%)-교육수강(10.0%) 순으로 답하여 최근까지의 약대 재학 시 임상관련 교육과 훈련이 약국 임상 실무 수행능력의 배양에는 미흡했음을 표현하였다. 이러한 임상교육의 불충분함 때문에 약사들이 실무 수행에 자신감을 보유하기까지 졸업 후 약 3-5년의 현장실무 경험기간이 소요된다고 응답했으며(지역약사 43.9%, 병원약사 50.0%), 이 때문에 병원약사의 35.5%가 약대 교과과정의 임상교육 비중이 40% 이상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지역약사 20.7%). 또한, 개국 및 병원약사 공히 '현재 임상현장에 첫발을 내딛는 후임 약사들이 충분한 임상관련 지식과 훈련을 받지 못한 채 배출되고 있다'고 응답함으로써(지역약사 86.2%, 병원약사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in the survey

Characteristics		Group of pharmacist			
		Community		Hospital	
Methods of information gathering		On site	Online	On site	Online
No. of survey subjects		110	60	50	20
No. of respondents		54 (49.1)	5 (8.3)	27 (54.0)	4 (20.0)
Total		N = 59 (34.7 %)		N = 31 (44.3 %)	
Qu_1. Sex	Male	10 (17.0)		2 (6.5)	
	Female	49 (83.0)		29 (93.5)	
Qu_2. Age	20-29 years	17 (28.8)		21 (67.7)	
	30-30	19 (32.2)		8 (25.8)	
	40-49	19 (32.2)		2 (6.5)	
	50-59	3 (5.1)		0 (0.0)	
	≥60 years	1 (1.7)		0 (0.0)	
Qu_3. Elapsed time after registration	Less than 2 years	11 (19.0)		14 (45.2)	
	2 to 5	12 (20.7)		9 (29.0)	
	6 to 10	13 (22.4)		4 (12.9)	
	11 to 20	10 (17.2)		2 (6.5)	
	More than 21 years	12 (20.7)		2 (6.5)	
Qu_4. Experiential period of clinical practices	Less than 2 years	19 (32.8)		19 (61.3)	
	2 to 5	12 (20.7)		10 (32.3)	
	6 to 10	16 (27.6)		2 (6.5)	
	11 to 20	8 (13.8)		0 (0.0)	
	More than 21 years	3 (5.2)		0 (0.0)	
Qu_5, 6. Territory of vocation	≥1,000,000 of population	42 (80.8)		22 (73.3)	
	1,000,000-500,000	1 (2.0)		6 (20.0)	
	500,000-50,000	6 (11.5)		2 (6.7)	
	50,000-10,000	3 (0.0)		0 (0.0)	
	< 10,000	0 (5.8)		0 (0.0)	
	Seoul Metropolitan Area	57 (98.3)		31 (100.0)	
	Cheolla (incl'd Kwangju)	1 (1.7)		0 (0.0)	
	Others	0 (0.0)		0 (0.0)	

Table 2. Overall views of the respondents about their clinical pharmacy practice capabilities established from the educational background and the working environment

Questionnaire	Group of pharmacist	
	Community	Hospital
Qu_7. Do your knowledge and skills necessary for the daily clinical practice were educated and trained completely when you were pharmacy student?	N = 59 (100 %)	N = 30 (100 %)
Very negative [+1]	16 (27.1)	5 (16.7)
Negative [+2]	33 (55.9)	18 (60.0)
Moderate [+3]	9 (15.3)	7 (23.3)
Positive [+4]	1 (1.7)	0 (0.0)
Very positive [+5]	0 (0.0)	0 (0.0)
Average value of 5-point rank scale	[1.92]	[2.07]
Qu_8. How did you gain and train your expertise necessary for the clinical practice?	N = 58 (100 %)	N = 30 (100 %)
Self learning and experiential repetition	17 (29.3)	15 (50.0)
Practical training and mentoring by senior pharmacists	23 (39.7)	11 (36.7)
Regular curricula of the pharmacy school	0 (0.0)	1 (3.3)
On-site and/or web-based clinical pharmacy programs	18 (31.0)	3 (10.0)
Miscellaneous	0 (0.0)	0 (0.0)
Qu_9. How long did it take until you become confident and competent in your expertise for the CPP?	N = 57 (100 %)	N = 30 (100 %)
Less than 1 year [+1]	8 (14.0)	7 (23.3)
1 - 2 [+2]	23 (40.4)	7 (23.3)
3 - 5 [+3]	25 (43.9)	15 (50.0)
6 - 10 [+4]	1 (1.8)	1 (3.3)
Over 10 years [+5]	0 (0.0)	0 (0.0)
Average value of 5-point rank scale	[2.99]	[2.33]
Qu_10. How much portion of CPP-oriented educational and training subjects should be secured in the new 6-year scholastic program?	N = 58 (100 %)	N = 31 (100 %)
Over 40 % [+1]	12 (20.7)	11 (35.5)
40 - 30 % [+2]	20 (34.5)	10 (32.3)
30 - 20 % [+3]	20 (34.5)	9 (29.0)
20 - 10 % [+4]	5 (8.6)	1 (3.2)
Enough and satisfactory at this level [+5]	1 (1.7)	0 (0.0)
Average value of 5-point rank scale	[2.36]	[1.99]
Qu_11. Do you regard the newly registered pharmacists are graduated equipped with more strong clinical expertise?	N = 58 (100 %)	N = 31 (100 %)
Very negative [+1]	12 (20.7)	4 (12.9)
Negative [+2]	38 (65.5)	21 (67.7)
Moderate [+3]	8 (13.8)	5 (16.1)
Positive [+4]	0 (0.0)	1 (3.2)
Very positive [+5]	0 (0.0)	0 (0.0)
Average value of 5-point rank scale	[1.93]	[2.09]

CPP (Clinical Pharmacy Practice)

80.6%) 약대 임상약학 교육의 현주소가 여전히 졸업 후 직업 현장에서 필수적인 직무의 수행능력 양성에 필요한 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인식함을 시사하였다(Table 2).

한편, 체계적인 임상실무 교육의 중요성과 실무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약사들의 대응 현황은 다음과 같다. 대부분의 지역, 병원 약사는 현재의 업무 수행수준에 반복 숙달하는

방식을 통해 도달하였으므로, 후배 초임 약사를 대상으로 임상 이론 및 실무 교육자로서의 체계화된 실무지도 능력은 미흡하다고 인정했다(지역약사 73.7%, 병원약사 85.0%). 그래서 이중 다수는 최근 1년 이내에 적어도 1주간 이상의 임상약학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이수했거나 이수 중이라고 응답할 만큼 학습에 자발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으며 지역

Table 3. Respondents' evaluation about their current CPP capabilities and the counter-actions compensate their clinical expertise insufficiency

Questionnaire	Group of pharmacist			
	Community		Hospital	
Qu_12. Are you a competent (well-trained and skillful) preceptor who is able to demonstrate clinical expertise to your preceptees?	N = 57 (100 %)		N = 30 (100 %)	
Very negative [+1]	3 (5.3)		6 (20.0)	
Negative [+2]	28 (49.1)		15 (50.0)	
Moderate [+3]	22 (38.6)		9 (30.0)	
Positive [+4]	4 (7.0)		0 (0.0)	
Very positive [+5]	0 (0.0)		0 (0.0)	
Average value of 5-point rank scale	[2.47]		[2.10]	
Qu_13. Have you ever participated and received at least a-week-long CPP education course within the last 12 months?	N = 58 (100 %)		N = 31 (100 %)	
No	10 (17.2)		12 (38.7)	
Yes	48 (82.8)		19 (61.3)	
Qu_14. If yes, what are your primary and secondary motives for your further study? (Free Multiple Choice)	Community		Hospital	
	Primary	Secondary	Primary	Secondary
	N = 55 (100 %)	N = 46 (100 %)	N = 21 (100 %)	N = 16 (100 %)
Insufficient and non-systematical self learning	37 (67.3)	5 (10.9)	12 (57.1)	1 (6.3)
Insufficient, unorganized mentoring by elder RPhs	8 (14.6)	7 (15.2)	7 (33.3)	3 (18.8)
Insufficient school education and clerkship	8 (14.6)	22 (47.8)	2 (9.5)	9 (56.3)
To catch up the advanced pharmacotherapy & CPP	2 (3.6)	8 (17.4)	0 (0.0)	3 (18.8)
Miscellaneous	0 (0.0)	4 (8.7)	0 (0.0)	0 (0.0)
Qu_15. If not, what are your primary and secondary reasons? (Free Multiple Choice)	N = 7 (100 %)	N = 4 (100 %)	N = 11 (100 %)	N = 5 (100 %)
Sufficient and systematical self learning	0 (0.0)	0 (0.0)	0 (0.0)	0 (0.0)
Sufficient, well-organized mentoring by elder RPhs	0 (0.0)	0 (0.0)	1 (9.1)	1 (20.0)
Sufficient school education and clerkship	0 (0.0)	0 (0.0)	0 (0.0)	0 (0.0)
Many kinds of physical, emotional barriers	5 (71.4)	0 (0.0)	10 (90.9)	2 (40.0)
CPPs are easy, Miscellaneous reasons	2 (28.6)	4 (100.0)	0 (0.0)	2 (40.0)

CPP (Clinical Pharmacy Practice); RPh (Registered Pharmacist)

약사의 경우에 그 비율은 더 높았다(지역약사 82.8%, 병원약사 61.3%). 임상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했던 지역, 병원 약사 모두는 교육수강의 첫째 이유를 '본인 스스로 진행한 임상관련 학습 및 경험이 원활한 업무수행에 크게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라고 응답했고(지역 67.3%, 병원 57.1%), 둘째 이유로는 '약대 재학시 수료한 임상약학 교육과정이 현장실무 수행을 위해서는 충분치 못했기 때문(지역 47.8%, 병원 56.3%)'이라고 응답했다. 반면, 최근 1년 이내 별도의 임상관련 교육을 수강하지 않았던 주된 이유를 '현재 근무여건상 자발적인 교육 수강이 여의치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역약사 71.4%, 병원약사 90.9%) 응답했다(Table 3).

프리셉터 제도의 인지도

다음은 현업 숙달에 필요한 기간을 거친 3년 차 이상의 약사들이 프리셉터에 대한 인지도와 이해도 등에 관한 설문 결과이다. 일단 '프리셉터'라는 단어가 지닌 뜻과 역할을 설

명하지 않은 채 단어 뜻의 인지여부만을 묻는 질문에는 병원약사들이 월등히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다(병원약사 61.3%, 지역약사 10.5%). 이는 지역약사보다는 비교적 잘 갖춰진 임상교육과 실무훈련 체계 속에서 근무하면서 익숙하게 접했던 단어이기 때문이라고 추측되지만, 인지도를 묻는 질문에 긍정적 답변을 선택한 지역약사들 중에서 '프리셉터'에 대한 역할 이해도는 더 높아서 '프리셉터'라는 용어의 인지도와 역할에 대한 이해도는 비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Table 4). 더불어, '프리셉터'라는 용어를 인지하는 것과 응답자의 개별적, 집단적 변수들 사이에는 통계적 유의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이는 지역약사 중 프리셉터의 뜻을 인지하는 사람이 총 6명 밖에 안 되는 현황 때문으로 사료되며, 향후 보다 많은 약사들의 의견을 보다 세밀한 설문조사로 찾아내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본다. 역시, 병원약사도 '프리셉터'라는 용어를 알고 있는 것과 위의 변수들 중 어떤 것 과도 통계적인 유의성이 없었다. 이는 지역약사들보다 프리

Table 4. The extents of recognition and adoption about the preceptorship of the clinical pharmacy practice at the workplace

Questionnaire	Group of pharmacist	
	Community	Hospital
Qu_16. Have you ever heard about the 'preceptor' and/or 'preceptorship'?	N = 57 (100 %)	N = 31 (100 %)
No	51 (89.5)	12 (38.7)
Yes	6 (10.5)	19 (61.3)
Qu_17. If yes, can you explain the exact meaning,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the preceptorship to the non-pharmacists?	N = 35 (100 %)	N = 23 (100 %)
No	9 (25.7)	10 (43.5)
Yes	26 (74.3)	13 (56.5)

Table 5. Results of the Fisher's Exact Test (p-value) for comparing the significance between the characteristic features of the respondents and the recognition of the preceptor's roles & responsibilities at the clinical practice settings

Characteristic features of the respondents	Group of pharmacist	
	Community	Hospital
Qu_1. Sex	0.5773	0.5097
Qu_2. Age	0.1665	0.8385
Qu_3. Elapsed time after registration	0.4153	0.6969
Qu_4. Experiential period of clinical practices in pharmacy setting	0.2844	0.5121
Qu_5. Territory of vocation (population)	0.2746	0.1309
Qu_6. Territory of vocation (district of administration)	1.0000	-
Qu_7. Sufficiency of clinical internship or training in curricula	0.2596	1.0000
Qu_8. Way of training or experiencing to build CPP expertise	0.4846	0.2572
Qu_9. Time to become confident and competent in their CPPs?	1.0000	1.0000
Qu_10. Portion of CPP-related subjects in the 6-year program	0.2427	0.3586
Qu_11. Fulfillment of CPP expertise in the junior pharmacists	0.4480	0.8302
Qu_12. Extent of qualification as a preceptor to their preceptees	1.0000	0.6883
Qu_13. Participation of CPP education programs within a year	0.5773	1.0000

셉터를 알고 있는 사람의 비율은 높지만 총 표본수가 불과 31명 뿐 이어서 통계적 검정력이 부족한 것이 하나의 이유로 사료되며, 향후 보다 많은 약사들의 의견을 보다 세밀한 설문조사 방법을 통하여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프리셉터 제도의 수용도

동일한 설문 대상자에게 미국의 의료현장과 교육체계 속에서 실제 활용중인 프리셉터 제도의 의미와 역할을 설명하는 문장을 보여준 후에 실시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다. 먼저, 프리셉터의 자격, 역할, 필요성, 효용성에 대한 전반적인 수용도를 묻는 질문에는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지역약사 85.7%, 병원약사 75.0%). 지역약사의 긍정적인 응답수치가 높은 이유로는 아마도 임상업무가 상대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느끼는 지역약국 근무 환경 때문이었다고 사료된다. 그리고, '향후 약대6년제 도입 시, 미국 약학교육 현장에서 뿐만 아니라 국내의 범 의료계에서 실행중인 프리셉터에 의한 임상실무 수련체계 도입이 초임 약사면허자들의 비임상적 실무능력까지도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하느냐'는 질문에 절대 다수가 긍정적인

의견이었다(지역약사 83.9%, 병원약사 92.6%). 조금 확장된 질문으로서, '프리셉터 제도를 비임상 실무현장 곧, 약국이 아닌 직장을 희망하는 약대생에게도 유용한 현장교육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기는가'라는 질문에 양측 다수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고(지역약사 73.7%, 병원약사 67.9%), 프리셉터와 유사한 실무지도 체제하에서 훈련되어 근무중인 병원약사 집단에서 긍정적인 응답률이 더 높았다 (Table 6).

프리셉터 제도의 수용 범위와 수준

현재 지역약국 및 병원약국에서 활동중인 약사들은 '임상 실무 프리셉터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려면 별도의 전문가 교육과정을 이수할 필요가 있느냐'는 질문에 절대 다수의 약사들이 그 당위성을 인정하였다(지역약사 97.3%, 병원약사 98.4%). 그리고, '임상실무 프리셉터의 양성을 위한 교육과, 자격인증은 어떤 주체가 수행하는 게 적절한가'를 묻는 사항에는 현 약학대학 또는 약국 같은 단위기관이 개별적으로 시행하는 것보다는 약학대학, 지역약사회 혹은 대한약사회, 임상약학회 같은 전문학회나 학술 소모임, 그리고 응답자 자

Table 6. Acceptance level of the preceptorship among clinical practitioners

Questionnaire	Group of pharmacist	
	Community	Hospital
Qu_18. Do you agree with the definition and description of preceptors in terms of their role, responsibility, necessity, and usability?	N = 49 (100 %)	N = 28 (100 %)
Very negative [+1]	1 (2.0)	0 (0.0)
Negative [+2]	0 (0.0)	1 (3.6)
Moderate [+3]	6 (12.2)	6 (21.4)
Positive [+4]	40 (81.6)	15 (53.6)
Very positive [+5]	2 (4.1)	6 (21.4)
Average value of 5-point rank scale	[3.86]	[4.07]
Qu_19. Does preceptorship will be a better training method for the pharmacy students and the new pharmacists to increase their clinical practice competence?	N = 56 (100 %)	N = 27 (100 %)
Very negative [+1]	0 (0.0)	0 (0.0)
Negative [+2]	1 (1.8)	0 (0.0)
Moderate [+3]	8 (14.3)	2 (7.4)
Positive [+4]	41 (73.2)	20 (74.1)
Very positive [+5]	6 (10.7)	5 (18.5)
Average value of 5-point rank scale	[3.93]	[4.11]
Qu_20. Does preceptorship will be a efficient educational & training method except either internship or clerkship?	N = 57 (100 %)	N = 28 (100 %)
Very negative [+1]	0 (0.0)	0 (0.0)
Negative [+2]	2 (3.5)	0 (0.0)
Moderate [+3]	13 (22.8)	9 (32.1)
Positive [+4]	40 (70.2)	1 (3.6)
Very positive [+5]	2 (3.5)	18 (64.3)
Average value of 5-point rank scale	[3.74]	[4.32]

신이 소속된 기관(개인개설약국, 체인약국, 병원약국) 등이 모두 참여하는 연합주체가 교육 및 자격인증 프로그램의 추진은 물론, 사후 관리하는 방안을 더 선호하였다(지역약사 87.5%, 병원약사 96.4%). 이렇듯 임상 프리셉터를 위한 별도의 교육과정이 필요함을 인정하면서 본인이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여 프리셉터가 되는 일에도 여전히 호응도가 높았다.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프리셉터의 자격과 활동 환경으로서 공인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을 갖춘 약사가, 교육의 기본요건을 갖춘 약국을 '임상교육약국'으로 지정하는 등 배타적 지위를 인정해주고, 프리셉터 자격을 보유한 약사에게는 적절한 편의와 우대사항을 제공한다면 자비로라도 그 교육을 이수하겠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매우 높은 찬성의사를 확인하였다(지역약사 84.3%, 병원약사 91.3%). 한편 임상약사들이 프리셉터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기대하는 보상은 다음과 같다. 지역약사의 경우는 첫째가 재정적 보상이었고(36.5%), 둘째는 약사의 임상실무능력 향상에 기여(48.9%)로 응답했으나, 중복 선택을 허용한 선호도 순으로 다시 나열하면, 약사의 실무능력 향상과 위상 제고(28.3%)·후학의 교육에 직접 참여(28.2%)·임상 실무교수 지위의 획득(24.2%)·재정적, 실질적 보상(18.3%)·기타(1.0%)의 순서로 나타났다. 병원약사의 경우도 첫째가 재정적 보상(65.5%)이었고, 둘째는

후학 교육에의 직접 참여와(34.5%), 임상 실무교수 지위의 획득으로(34.5%) 동일하게 응답했다. 이를 선호도 순으로 다시 나열하면, 재정적, 실질적 보상(34.5%)·임상 실무교수 지위 획득(29.3%)·후학 교육에 직접참여(22.4%)·약사의 실무능력 향상과 위상 제고(12.1%)·기타(1.7%)의 순으로써 지역약사들의 선택과는 상이하였다. 또한, 현직 약사를 대상으로 '프리셉터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기간은 어느 정도가 적절하겠는가'를 묻는 질문에, 공히 '6개월 이상-1년 이내' 구간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지역약사 52.7%, 병원약사 69.0%). 마지막으로, 본 조사의 응답자들은 무기명 응답방식으로 진행되어 향후 조사대상에 다시 선정될 가능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프리셉터 양성을 위한 교과과정 개발과 프리셉터가 구비해야 할 역량 정의 등 후속적인 심층연구가 진행된다면 그 설문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여서(지역약사 91.7%, 병원약사 85.2%) 현직 임상약사들의 프리셉터 제도에 대한 관심과 기대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Table 7).

고 찰

이번 설문조사에 응한 약사 90명은, 자신이 수학적 약대

Table 7. Pharmacists' interests in the clinical training system including preceptorship

Questionnaire	Group of pharmacist			
	Community	Hospital		
Qu_21. Do you need any kind of additional educations or trainings for your implementation as a preceptor for the junior pharmacists or the pharmacy students?	N = 56 (100 %)	N = 29 (100 %)		
Very negative [+1]	0 (0.0)	0 (0.0)		
Negative [+2]	1 (1.8)	0 (0.0)		
Moderate [+3]	1 (1.8)	1 (3.5)		
Positive [+4]	27 (48.2)	12 (41.4)		
Very positive [+5]	27 (48.2)	16 (55.2)		
Average value of 5-point rank scale	[4.43]	[4.52]		
Qu_22. Which institution would be adequate and qualified for the preceptorship course?	N = 56 (100 %)	N = 28 (100 %)		
Pharmacy school	4 (7.1)	0 (0.0)		
KPA or Regional PA	15 (26.8)	9 (32.1)		
Local pharmacy or franchise (chain) pharmacy, confined	2 (3.6)	1 (3.6)		
Associated bodies incl'd'n School-KPA-KCCP-KSHP, etc	34 (60.7)	18 (64.3)		
No concerned	1 (1.8)	0 (0.0)		
Qu_23. Are you willing to enroll and participate in the course of preceptor training when you are given with some rewards or benefits (ie. qualified- or certified-preceptor licensure)?	N = 54 (100 %)	N = 29 (100 %)		
Very negative [+1]	0 (0.0)	0 (0.0)		
Negative [+2]	2 (3.7)	0 (0.0)		
Moderate [+3]	13 (24.1)	5 (17.2)		
Positive [+4]	27 (50.0)	13 (44.8)		
Very positive [+5]	12 (22.2)	11 (37.9)		
Average value of 5-point rank scale	[3.91]	[4.20]		
Qu_24. What rewards are you want to gain when you are joining the preceptorship course primarily and secondarily? (Free Multiple Choice)	Community		Hospital	
	Primary	Secondary	Primary	Secondary
	N = 52 (100 %)	N = 47 (100 %)	N = 29 (100 %)	N = 29 (100 %)
Financial remuneration	19 (36.5)	0 (0.0)	19 (65.5)	1 (3.5)
Entitle clinical-professor or suitable status	13 (25.0)	11 (23.4)	7 (24.1)	10 (34.5)
Engage or participate in the CPP education	16 (30.8)	12 (25.5)	3 (10.3)	10 (34.5)
Heightening the pride and CPP capabilities	4 (7.7)	23 (48.9)	0 (0.0)	7 (24.1)
Miscellaneous	0 (0.0)	1 (2.1)	0 (0.0)	1 (3.5)
Qu_25. What do you think of an acceptable period of time for the preceptorship training course in the future?	N = 55 (100 %)	N = 29 (100 %)		
Shorter than 2 weeks [+1]	0 (0.0)	2 (6.9)		
3 - 4 weeks [+2]	5 (9.1)	0 (0.0)		
1 - 2 months [+3]	5 (9.1)	1 (3.5)		
3 - 6 months [+4]	16 (29.1)	6 (20.7)		
6 months - 1 year [+5]	29 (52.7)	20 (69.0)		
Average value of 5-point rank scale	[4.25]	[4.45]		
Qu_26. Are you willing to get in-depth interviews or to join the further study for developing the preceptorship?	N = 48 (100 %)	N = 27 (100 %)		
Responded affirmatively	44 (91.7)	23 (85.2)		
Responded negatively	4 (8.3)	4 (14.8)		

CPP(Clinical Pharmacy Practice); KPA(Korea Pharmacist Association); KCCP(Korea College of Clinical Pharmacy); KSHP(Korean Society of Health-System Pharmacist)

교과과정으로는 임상실무를 심도 깊고 체계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학습과 훈련량이 충분하지 못하여 졸업 후 평균

4년간 추가 교육수강은 물론, 실무경험을 축적하며 임상업무에 숙달하였기에, 이 같은 교육내용과 현실수준의 격차를 해

소하려면 약대 교육과정 중 적어도 30% 이상이 임상이론 및 실습관련 과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프리셉터에 대한 인지도에는 약사그룹간 차이가 있었으나, 모두 이상적인 프리셉터 역할수행을 기대했으며, 약 6개월 내의 동안의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해서라도 실무능력을 향상시키고 또 인정받는 약사로서의 자존감과 성취감에 대한 의지를 표현했다. 그리고, 약학대학-약사회-임상전문학회 등이 함께 참여하는 프리셉터 양성과정과 인증제도의 실행을 더 선호하였다. 프리셉터 역할에의 기대사항은 임상교육과 실무기술 발전에 기여하여 약사의 직무능력 및 위상의 제고와 동시에 약사 개인의 명예와 경제적 실익도 함께 추구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최근까지 약학대학 졸업 후 면허 취득자의 약 80%가 지역약국으로 진출하던 경향에서 올해는 40% 까지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⁹⁾ 이는 2000년 초 의약분업 실시로 가속화된 약사인력의 지역약국 선호현상이 병원약국과 제약기업 쪽으로 다시 수평적 다변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하지만, 약대6년제가 본격 시행되면 신규 약사들은 더욱 고도화된 전공지식과 숙련된 직무 수행력이라는 수직적으로 차별화된 능력을 사회로부터 강하게 요구 받게 될 것이다.^{18,19)} 이에 대비하여 약학대학 교과과정 개편이 추진 중이지만, 이론 교과과정 재조정으로써 전공지식의 심화는 달성될지라도 실무능력의 숙련은 기존 실험실습이 아닌 다른 방식이 개발되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²⁰⁾ 이를 위하여, 약사의 직무 현장에서 실무실습 교육을 전담할 프리셉터 약사의 자격기준과 역할정의는 물론, 약사의 직무행위와 수준을 임상현장의 관점에서 재정의해야 하고 갖춰야 할 능력수준까지 정한 뒤, 이를 구현할 교육 및 훈련과정이 개발되어 최 일선의 혼육자를 양성하는 일은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이다.^{21,22)} 이에 대해 선진국 사례를 참고한 교육 및 양성 안이 제시되기도 했지만, 현 시점에서는 우리나라의 현실이 심도 깊게 반영된 제도 및 시행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객관적인 근거를 수집하고 이익주체간 합의점을 찾아내는 것이 약대6년제의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면서 급변한 환경에 따른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하는데도 유용할 것이다.²³⁾ 따라서, 이제까지 약학 이론교육의 주체였던 약학대학과, 임상실무 교육과 수행주체로서의 직능단체 사이의 제도개혁 방향에 대한 요구사항이 일부 상충되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조사연구가 현장 실무자들의 요구내용과 수준에 부합하는 교육의 틀을 제시하고 약사의 실무능력을 향상시킬 프로그램 개발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24,25)}

하지만 이번 조사와 해석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었기에 추후 보완이 필요하다. 첫째, 조사대상자 선정과 대표성이 취약하다. 지역 또는 병원 약국의 소재지역이나 근무인원, 혹은 처방전 처리규모 등에 따라 적절한 구간을 설정하여 잘 통제된 환경하에서 설문조사 대상자를 무작위 할당하는 방식에 의해 응답을 확보하지 못하고 임상약학관련 강좌

의 수강 이력을 가진, 이른바 면허취득 후 학습에 열의와 적극성향을 지닌 약사들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조사연구의 응답자들은 대체로 약업계의 환경변화에 민감하면서, 대응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또 동질성을 지닌 약사 상호간 정보의 공유에도 매우 적극적인 부류라고 판단된다. 둘째, 설문 응답자의 수가 적어서 본 연구에서 밝혀진 사항만으로 수도권 지역의 현지 지역약사나 병원약사들의 평균적이고 일반적인 의견으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셋째, 설문의 내용이 약사들의 의식 및 현황 파악 중심으로 시행되었으므로, 프리셉터 제도에 대한 의식수준과 수용도의 동적인 변화상까지는 제시하지 못했다.

결론

이번 설문조사연구는 표본집단의 선정방식과 규모는 비록 불완전하였지만, 임상 현장에서 활동중인 약사들의 프리셉터 제도에 대한 인식과 수용에 대한 수준과 선호사항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며, 향후 임상약학 현장교육 강화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실무지도자 양성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본 요건과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참고문헌

1. 신용문. 약대 6년제의 약국실무실습 의의와 준비과제. 의약품정책연구 2008; 3(1): 110-122.
2. 민일기. 미국 약학교육 및 약사제도를 통한 약사 직능 개혁 I. 의약정보 2003; 29(10): 142-147.
3. 민일기. 미국 약학교육 및 약사제도를 통한 약사 직능 개혁 II. 의약정보 2003; 29(11): 148-156.
4. Nemire RE, Kier KL. Pharmacy Clerkship Manual. McGraw-Hill, 2002.
5. 대통령자문 약사제도개선 및 보건산업발전특별위원회. 약학교육 내실화 및 약사인력 양성제도 개선방안. 약학논총 2002; 16: 79-102.
6. 최준식. 21세기 약사의 역할과 약학교육. 병원약사회지 1995; 12(4): 292-301.
7. 신성철. 약학대학협의회 6년제 추진의 문제점. 의료정책포럼 2004; 2(3): 50-57.
8. 박연주. 약대6년제에 있어서의 약학교육과 병원약사의 역할. 병원약사회지 1996; 13(3): 212-214.
9. 전국 18개 약학대학 2008년 2월 졸업생 취업현황조사 (약업신문 2008년 5월 20일자)
10. 김성현, 오정미. 약학교과과정의 개국약국실습 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임상약학회지 1999; 9(2): 109-118.
11. 성백우. 개국약사의 학회참여율 높여야 한다. 대한약사회지 1992; 3(3): 63-70.
12. Shannon SJ, Walker-Jeffreys M, Newburt JW, et al. Rural

- clinician opinion on being a preceptor. *Rural and Remote Health* 2006; 6: 4901-13.
13. Bramson R, VanLandingham A, Heads A, *et al.* Reaching and teaching preceptors: Limited success from a multifaceted faculty development program. *Family Medicine* 2007; 39(6): 386-8.
 14. Lee JK, Park HK. Evaluation of community primary care clerkship. *J Korean Acad Fam Med* 1999; 20: 812-821.
 15. 양남영, 한성숙. 프리셉터와 프리셉티의 간호 업무성과 영향요인. *한국간호교육학회지* 2005; 11(2): 135-141.
 16. Refer to "<http://en.wikipedia.org/wiki/Preceptor>" (accessed on May 30, 2008)
 17. 송윤미, 김창엽, 유태우, 등. 임상 지도의사 제도에 의한 임상교육의 내용과 교육태도에 대한 평가. *한국의학교육* 1993; 5(1): 41-52.
 18. Saseen JJ, Grady SE, Hansen LB, *et al.* Future Clinical Pharmacy Practitioners Should Be Board-Certified Specialists. *Pharmacotherapy* 2006; 26(12): 1816-1825.
 19. 박의순. 미국 병원약사의 역할과 기능. *의약품정책연구* 2008; 3(1): 93-102.
 20. Manasse HR, Speedie MK. Pharmacists, Pharmaceuticals, and Policy Issues Shaping the Work Force in Pharmacy. *Am J Health-Syst Pharm.* 2007; 64(12): e30-e48.
 21. Halfer D, Graf E. Graduate Nurse Perceptions of the Work Experience. *Nurs Econ* 2006; 24(3): 150-155.
 22. Burns C, Beauchesne M, Ryan-Krause P, *et al.* Mastering the Preceptor Role: Challenges of Clinical Teaching. *J Pediatr Health Care* 2006; 20(3): 172-183.
 23. Skrabal MZ, Kahaleh AA, Nemire RE, *et al.* Preceptors' Perspectives on Benefits of Precepting Student Pharmacists to Students, Preceptors, and the Profession. *J Am Pharm Assoc.* 2006; 46(5): 605-612.
 24. 김창희, 김혜숙, 조혜성, 등. 신규간호사 배치후 교육시 프리셉터쉽 적용 사례연구. *성인간호학회지* 2000; 12(4): 546-559.
 25. 문경선, 박경숙. 프리셉터 교육이 프리셉터 역할인식과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간호행정학회지* 2004; 10(4): 401-415.